

KTU + Capacity Development Workshop KTTU + Capacity Development Workshop KTTU + Capacity Development Workshop KTTU + Capacity Development Workshop

KTU + Capacity Development Workshop KTTU + Capacity Development Workshop KTTU + Capacity Development Workshop

KTU + Capacity Development Workshop KTTU + Capacity Development Workshop KTTU + Capacity Development Workshop



- 04 KT 인사이드
- 제1대 최상용 위원장

Special Theme
조합간부 역량강화
- 08 스케치 / 제14대 집행부 전국 조합간부 역량강화 교육
- 12 인터뷰 / 호남여성국장 문주훈, 경산지부장 구연수
- 14 Focus On
- 나눔과 희망엔 국경이 없다
- 18 현장 속으로
- 충청지방본부 박종오 위원장
- 20 KTTU 생활백서
- 보이스피싱 예방과 대처
- 22 여행여지도
- 강릉 & 안면도
- 26 ICT 리포트
- '통신사 빅3', 로봇 시장을 잡아라!
- 28 시대공감
-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다
- 30 문화살롱
- 훨씬 가깝고도 낯선 시선, '코리아 디아스포라'
- 32 KTTU NEWS
- 36 카툰 / Q&A로 알아보는 KT 우리사주 청약
- 38 현장의 목소리 & 퀴즈

발행인 KT노동조합 위원장 최장복
편집인 KT노동조합 조직처장 김인관
발행일 2022년 6월 30일(격월간)

발행처 KT노동조합
1360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정자동 206)
T 031-727-2840 F 031-727-2815

기획·제작 (주)워크디자인 T 02-332-7961~2

천만 회선, 1가구 1전화 시대를 열다

전화기가 압구정 아파트 한 채 값이던 시절
비라도 오면 뚝뚝 끊기고
사나흘 이유 없이 먹통이 된 전화기를 고치려고
전화선을 따라 20리, 30리 길을 일일이 확인했고,
끊어진 곳을 못 찾으면 며칠을 헤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눈비를 맞고, 흠탕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우리의 수고가
1987년 천만 회선 돌파, 1가구 1전화 시대를 열었습니다.
누구나 집과 사무실에서 전화로 일하고
멀리 떨어진 친구와 가족과 쉽게 대화하는 일상은
KT노조 조합원이 남긴 위대한 유산입니다.

KT노조 40년,
우리가 이룬 역사 위에
이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려 합니다.



KT노조 제 1대 위원장 최상용 산업 발전의 기틀, 한국통신 노사가 함께 이룬 성과

1982년 1월 6일 3만 5,000여 명의 조합원과 함께 노조 창립을 선포했던 최상용 위원장에게
40년 전은 여전히 생생한 과거다. 전기통신 역사를 열고,
정보통신시대를 주도했던 1980년대 한국통신 노사의 목표와 방향은 동일했다.
국가와 기업의 발전, 조합원 고용안전과 처우개선이 같은 무게와 깊이로 다뤄졌던 그 시절로
최상용 전 위원장과 함께 잠시 시간 여행을 떠나본다.



1982년 지부장회의

1982년 1월 KT노조 창립 배경을 이해하려면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한국통신) 출범
설립 과정을 먼저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과는 사회 분위기뿐 아니라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달랐죠. 노조 창립 한
달 전 체신부에서 통신 부문이 갈라져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설립됐습니다.
1960~70년대 고속성장을 지나오면서 70년
중반부터 전화 수요가 급증했지만 통신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했죠. 교환기 등 전화 시설이 노후해
장비 현대화도 시급했고요. 당시 전화보급률이
10%를 넘지 못했던 터라 전화가 투기 대상이
되면서 사회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어요.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이야기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급증하는 통신환경 및 기술 변화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쏟아지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했고,
그 대안이 통신 사업의 공사화였어요. 1980년
12월 체신부가 통신사업을 분리해 공사화를
확정했고, 1982년 1월 1일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노조창립이 1월 6일이니깐
한국통신은 노사가 함께 출범한 것이죠.

체신부에서 분리 후 공사로 출범하면서
조합원은 공무원에서 국영기업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됐습니다. 지위 변화에
구성원들의 반응이나 분위기는 어떠했나요?

분위기는 오히려 좋았어요. 처우나 임금 등이
공무원 때보다 많이 개선됐거든요. 공무원일
때는 규율과 규정도 많고, 조직 운영이나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는데
국영기업이 되면서 자율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도 사기가 많이 올라갔어요.
당시에는 전 사원이 노사를 떠나 기업발전이
국가발전이라는 사명감이 있었고, 우리가
통신 산업의 주역이라는 자부심도 컸습니다.
한국통신이 빠르게 성장한 배경에는 노사간의
협력이 있었습니다.

**“전 사원이 노사를 떠나
기업발전이 국가발전이라는
사명감이 있었고,
우리가 통신 산업의 주역이라는
자부심도 컸습니다.
한국통신이 빠르게 성장한
배경에는 노사간의 협력이
있었습니다.”**



1982년 노동조합원단

노사 분위기가 현 시대와는 상당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한국통신 설립 이전엔 전화를 신청하면 개설까지 보통 3개월이 걸리고, 지역에 따라 1년이 소요되기도 했어요. 한국 사회가 빠르게 산업화되면서 통신 기술의 발전과 대중화는 더욱 중요해졌어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한국통신의 출범이 이뤄졌기에 노사 모두 한국통신의 안정화를 국가 발전과 동일선상에서 생각했습니다. 사측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임금이나 처우에 있어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였고, 한국통신 6만 여 명의 직원도 나라가 발전해야 개인의 삶도 안정될 수 있다 생각해 회사에 협조했어요. 그게 당시 한국통신의 분위기였습니다.

“공무원에서 국영기업 직원으로 전환되면서 전 직원이 스스로 동기부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사기를 올리는 게 필요했습니다. 고용안정은 물론 임금과 처우개선이 필요했죠. 한국통신으로 분리됐지만 조합원 분위기는 오히려 긍정적이었습니다.”



한국통신 노조는 창립과 함께 단일노조로는 전국 최대 규모의 노조가 됐습니다. 한국통신 노조 창립 후 노조의 활동 과정은 무엇이었나요?

조합원들의 주요 요구 사항은 고용안정과 임금인상이었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공무원에서 국영기업 직원이 됐기 때문에 임금은 그 전보다 높아야 직원들이 동기부여하며 일할 수 있다고 사측에 요구했습니다. 회사 간부들도 조합원의 요구를 당연하게 여겼고요. 한국통신 초대 사장이 육사출신 민정당 국회의원 이우재 씨였는데 자기 아버지가 중앙전화국 직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전화국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자라서 한국통신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어요.



현재의 노조마크가 1대 집행부 때 만들어졌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그때 조합원들이 참 열심히 참여했어요. 사실 마크를 만들 때 공모뿐 아니라 전문가 의견을 듣고, 전문가가 직접 제작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공모로 들어온 지금의 KT노조마크가 가장 좋다 하더라고요. 우리 조합원이 만든 한국통신노조의 상징과 의미를 외부인의 시선이 따라올 수 없었던 거죠. 우리 때 만든 마크를 40년이 지난 요즘에도 사용하는 걸 보면 뿌듯합니다.

출범 직후 국내 최대 규모의 노조가 됐습니다. 노조를 이끄는 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출범했을 때 조합원이 3만 5,000명이었어요. 제가 전국체신노동조합(이하, 체신노조)의 부위원장을 하다 한국통신으로 오면서 한국통신 위원장을 맡게 된 거죠. 저와 같이 체신노조에 있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를 조직하고, 조합을 이끄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다만 한국통신노조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노동계 내부에선 우리에게 일정 정도 바라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사기업의 경우 노사관계가 우리와는 사뭇 달랐고, 타사 노조 규모 역시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규모가 큰 우리 노조에 여러 요청이 있었죠.

한국통신 노조는 일찍부터 국제 교류를 활발하게 펼쳤습니다. 1985년에 전국대의원대회에는 일본전기통신관계노동조합의 야마기시 아키라 위원장이 참석하는 등 국제연대의 기틀을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한국통신 노조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대한체신노동조합이 1958년 창립되면서 국제체신노련에 가맹했었죠. 한국통신으로 분리됐지만 국제교류가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통신으로 분리된 직후 통신기업으로서 조직 운영에 미흡했던 시절 회의나 세미나 등 국제교류를 통해 한국통신 근로자의 직무·직종 체계와 역할을 비롯해 근로환경, 처우조건 등 많이 배웠습니다. 해외사례를 연구해 회사에 제시하면 회사가 매우 긍정적으로 수용했죠. 가장 가깝게 지낸 곳은 일본전기통신관계노동조합 전전통(全電通)이었습니다. 우리와 거리도 가깝고, 비슷한 조건이 많았어요. 1980년대엔 한국과 일본의 산업발전 수준이 현격하게 차이가 컸습니다. 통신산업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자연스럽게 선진화된 일본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했죠.



1992년 국제교류(일본)

KT노조 40년 역사에서 위원장님이 역임하셨던 10년의 시간을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신가요?

완전 민영화된 KT와 국영기업이었던 한국통신과는 여러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겠죠. 다만, 유래를 찾을 수 없는 한국의 빠른 산업발전은 통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한국통신 노사가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서 일군 성과입니다.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80년대 한국통신이 산업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듯 4차 혁명이라 일컬어지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기에 직면한 한국사회에 KT의 역할이 앞으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선배 노조위원장으로서는 후배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노조 활동을 하더라도 기업이 발전해야 소속된 조합원의 임금이나 근로조건, 고용안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미 없는 갈등이나 대립, 실익 없는 반대투쟁만으로는 조합원의 노동 가치실현과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의 고용안정과 임금 및 처우개선이 있어야 직원 사기가 올라가고, 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노사는 결국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파트너라는 걸 명심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조가 창립 40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노조 간부와 조합원의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모든 후배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14대 집행부 조합간부 역량강화 교육 리더십 소통부터 KT 경영현황까지 아는 게 힘이다!

5월 16일(월), KT원주연수원에서 제14대 집행부 전국 조합간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1기 입소식을 개최했다.
27일(금)까지 약 2주일 동안 진행된 교육은 조합간부를 총 3기수로 나눠 진행했으며
1기수 강남·충청지방본부, 2기수 대구·본사·호남지방본부,
3기수 강북·부산지방본부 조합간부가 각각 2박 3일의 역량강화 교육을 받았다.
한편 교육 첫날 원주연수원을 찾은 최장복 위원장은 교육생을 격려하며
“일상 속 조합원과의 소통과 조합간부의 평소 생활은
노동조합의 사업방향에 대한 선전활동 그 자체다.
노조 간부로서의 지향점과 정체성을 일깨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1일 차 교육

오후 2시, 입소식으로 2박 3일의 본격적인 교육
일정이 시작됐다. 이날 교육은 ‘노조간부의 소통
리더십’, ‘2022년 노동정세 및 노사관계 쟁점
분석’, ‘바로알자 KT’, ‘KT복지제도 이해하기’
총 4개의 강의로 진행됐다.

첫 번째로 진행된 ‘노조간부의 소통 리더십’은
현장에서 조합원과의 소통을 위해 간부가 가져야
할 마인드와 공감력을 키우는 시간이었다.
공감·조절·자기노출·확신의 소통 4단계,
존중과 배려의 소통법 등을 훈련하며 간부들은
현장소통의 중요성과 대화의 기술을 익혔다.

한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노광표 원장이
강사로 나선 ‘2022년 노동정세 및 노사관계 쟁점
분석’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사회 질서와
노동환경, 세대의 변화 속에서 노조의 역할을
고민하고, 새로운 노동운동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시간이었다.

‘바로 알자 KT’에서는 2021년 KT 재무 성과 및
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2022년 KT의 경영목표와
경영현황을 살펴 노조 간부로서의 역량을
키웠다.

밤 9시까지 이어진 마지막 교육은 노동조합의
박병규 복지기획국장이 설명하는 ‘KT복지 제도
이해하기’였다. 조합원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복지제도에 대해 간부가 그 의미와 혜택 범위
등을 제대로 알고, 현장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일 차 교육

2일 차 교육은 ‘조합간부 기본소양 및 일상 활동’으로 시작했다. 황윤구 조직기획국장은 교육을 통해 조합원 신뢰도 향상을 위해 조합간부 스스로 공정하고 투명한 일상 활동과 기본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가면의 인문학’ 시간에는 타인과 제대로 소통하기 위해선 먼저 자신의 페르소나(가면)를 파악한 후 소통과 행복의 의미를 재탐색하고, 발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둘째 날 오후 교육에서는 올해 초 본격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노조 간부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집단적 노사관계법 실무’ 교육이 이어졌다.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은 현장 상황에 맞는 법 적용뿐 아니라 노조 간부가 먼저 안전·보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조합원의 안전을 지키도록 법률적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이었다. 또 ‘집단적 노사관계법 실무’에서는 이상혁 노무사가 단체교섭 및 쟁의 행위 관련 법률 쟁점을 소개함으로써 올해에도 진행될 단체교섭에 대한 법률적 이해도를 높였다. 한편 이날 마지막 교육은 간부이자 조직의 리더로서 조합원을 설득하고 이끌 때 필요한 기본역량을 키우는 ‘선전선동(연설) 이론과 실습교육’이 진행됐으며 교육이 끝난

이후에는 조직 활성화 위한 분임 토의가 밤늦도록 진행됐다. 현장에서 간부가 느끼는 고민과 한계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며 전국의 노조 간부는 조직의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3일 차 교육

2박 3일 동안 진행된 교육은 조합 간부가 사회·경제·노동·법률 및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는 동시에 간부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리더십과 소통 역량을 키우는 시간이었다. 간부들은 교육을 받으며 간부의 책임과 역할, 과제 등을 모색하고 현장에서 조직을 보다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이끌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치열한 고민을 나눴다. 또한 ‘일상으로의 전환과 현장조직 활성화’, ‘세대·성별·직군 간 갈등 해소 실천 방안’, ‘지부실 운영 개선 방안’라는 주제로 분임토의를 한 후, 결과 발표의 시간도 있었다. 이후 퇴소식과 함께 2박 3일의 교육을 모두 무사히 마친 조합 간부들은 향후 조합활동에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히며 자신들의 일터로 돌아갔다.

Mini Interview

지속 가능한 노동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힘

김인관 조직처장

노동조합에게 조합간부 교육의 의미는?

노동조합이 주체적으로 사회를 노동에 유리하도록 만드는 활동을 계속하려면 간부들의 높은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활동가가 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간부들의 역량을 담보해야 조합원에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노조의 간부교육을 하나의 교육 사업이 아닌 노동운동의 중요한 한 축으로 봐야 합니다.

이번 조합간부 역량강화 교육 내용은?

교섭을 포함한 법률, 선전선동, 조직 등의 실무 관련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한 해를 관통하는 노동 쟁점도 중요한 교육 주제입니다. 경제, 정치, 노동 분야 전반을 살펴서 운동 방향의 양태를 전망·계획하고, 중대 현안이 현장에 미칠 영향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노동조합 간부는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성은 물론, 다른 업무도 일정 수준 할 줄 아는 ‘올라운드플레이어(All-round Player)’이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지만, 효율적으로 간부로서의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조합간부 역량강화 교육의 주안점은?

교육은 직종, 직군이 서로 다른 간부가 서로를 이해하며 조직의 결속력을 키우는 계기가 됩니다. 따라서 조합 간부가 어떻게 활동해야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노동조합의 힘은 조직화와 단결에서 나오고, 조합원의 조직화와 단결은 간부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간부 역량강화 교육은 노동조합 운영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 간부에게 바라는 점은?

산업과 노동의 변화에 따라 노동조합 간부에게 요구되는 역할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간부교육 중 소통과 갈등 조정 훈련이 포함된 것은 이러한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비슷한 입장을 공유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각기 다른 배경과 관점을 가진 노동자가 조합 내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MZ세대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상징한다 생각합니다. 과거보다 사회적 갈등 구조가 커진 것입니다.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문화들이 노동 문제에 들어오면서 소통 문제가 발생합니다. 얼마 전 있었던 동아제약 여성 노동자 채용 관련 논란도 젠더와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노조로 유입되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 간부가 교육을 통해 세대, 직종, 젠더, 환경, 계급 등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조직을 결속시키는 역량을 키워내길 기대합니다.



2022 UCC 글로벌 봉사활동 나눔과 희망엔 국경이 없다

코로나19로 빠르게 진행된 양극화는 국경에 상관없이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했다.

그 어느 때 보다 모든 경계와 구분을 넘어선 나눔과 희망이 필요한 때다.

이에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기업 간 노사협의체 UCC(Union Corporate Committee)가

3년 만에 기지개를 켜다. KT를 포함해 국내 22개 기업 노사가 연대해

나눔 실천과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세계 최초의 노사공동 나눔협의체’로서 다시 한번 힘을 모은 것이다.



3년 만의 UCC 활동 재개

무려 3년 만의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이었다. 34도의 후끈한 공기가 가장 먼저 마중을 나왔다.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교류가 3년 동안 멈춰있었지만, 세계적인 양극화 현상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 간으로 확대됐다. 전면적인 봉쇄 조치로 소득이 급감했지만, 재정이 부족한 나라는 경기부양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커졌다. ‘국경과 이념을 넘어서는 나눔’을 실천하는 UCC가 베트남을 찾은 이유도 그래서였다. 소유보다 나눔을, 경쟁보다 상생을 추구하는 글로벌 연대와 양극화 완화 노력이 시급했다.

하노이에 도착하자마자 UCC를 이끌고 있는 KT노조 최장복 위원장은 우선 베트남정보통신조합 VNUICW(Vietnam National Un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ers)를 방문해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간담회 및 민간외교 성과 창출을 위한 교류의 자리를 가졌다.

본격적인 UCC 활동은 24일 오후 베트남 장애인올림픽위원회와 베트남 장애인태권도협회 방문으로 시작했다. 베트남 장애인올림픽위원회와 양국 간 민간외교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한 후 KT노조는 곧바로 베트남 장애인태권도협회를 방문했다. 2020년 도쿄장애인올림픽에 이어 2022년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장애인아시아게임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장애인태권도 선수들의 열정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베트남의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태권도 수업을 정규로 운영하는 등 최근 태권도의 인기는 한류를 뛰어넘었지만 장애인태권도는 아직 대중적 인지도가 낮을 뿐 아니라 경기용품도 부족한 상태였다. 이에 UCC는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선수단을 격려하고 글로벌 태권도 확산에 보탬이 되고자 헤드기어, 호구, 팔다리보호대, 손보호대 등 태권도 겨루기 장비 세트 외에 훈련용 바람막이, 트레이닝복, 장애인태권도 선수용 휠체어 등 다양한 장비를 협회에 제공했고, 장애인태권도협회와 선수들은 전달된 물품에 환호하며 운동에 전념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다.

**베트남 장애인 올림픽위원회와 대한민국 UCC간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베트남 장애인 올림픽위원회와 대한민국 기업간 노사공동 나눔협의체 UCC(이하 "UCC")는 베트남 장애인 태권도의 공평 발전 및 보급 확대와 양국간 친선 강화를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다하고 상호 협력 할 것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베트남 장애인 올림픽위원회와 UCC는 장애인올림픽 및 장애인 아시아 게임의 태권도 정식종목 채택을 위하여 상호 적극 협력한다.
2. 베트남 장애인 올림픽위원회와 UCC는 베트남 태권도 확산과 장애인 태권도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적극 협력한다.
3. 양 단체는 상호 간의 적극적 협력이 단체의 공동 발전은 물론 구성원의 복지향상과 양국간의 협력을 위하여 중요함을 인식하고, 신의에 따라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2022년 6월 24일



다낭에 전파된 ‘KT IT희망학교’

26일(일), 다낭으로 이동한 UCC는 호아방(Hoa Vang) 고엽제 피해아동보호센터와 다낭 고엽제·다이옥신 피해자 지원협회를 오전, 오후로 나눠 방문했다. 두 센터는 모두 2006년에 오픈한 곳으로 고엽제 후유 아동과 지역의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곳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긴 마찬가지였다. 세계는 4차산업 시대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지만, 다낭의 작은 아동센터에서는 IT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KT가 나서야 할 때였다.

KT는 아이들이 IT 교육 경험과 지속적인 학습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센터 내 ‘KT IT희망학교’를 열었다. 교실에 10여 대의 데스크 톱과 컴퓨터 책·결상, 프린터기 등을 설치해 센터 내 아동들이 지속적인 IT교육을 통해 다양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아이들은 센터에 새로 생긴 ‘KT IT희망학교’에



눈을 떼지 못했고, 마당에선 작은 잔치가 열려 시끌벅적했다. 센터 관계자 외에 지역 주민까지 참석해 KT IT희망학교 신설을 축하하며 기쁨을 나눴다. 그리고 크게 기뻐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UCC 봉사단은 3년 만의 활동에 미안함과 뿌듯함이 교차했다.



한편 아동센터 아동들과 물총싸움, 딱지치기 등 한국의 놀이를 통한 교육 봉사는 아이들에게 가장 큰 호응을 받은 활동이었다. 지난해 OTT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세계적 인기로 어느 때보다 한국의 놀이에 호기심이 컸던 아이들은 봉사단원과 물총 싸움을 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즐거워했다. 특히 ‘딱지치기’는 아이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인 놀이였다. 두꺼운 종이로 딱지를 접는 모습을 눈도 깜박이지 않고 지켜보며 따라 접던 아이들은 자신이 만든 딱지를 뿌듯해하며 딱지치기 연습에 돌입했다. ‘딱’ ‘딱’ 하는 시원한 딱지 소리, 넘겨지지 않는 딱지에 터지는 아쉬운 함성 등 놀이를 즐기는 아동들의 모습은 어릴 적 우리 모습을 절로 생각나게 해 봉사단원들은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다음을 기약하며

어느새 UCC봉사활동의 마지막 날이 밝았다. 6월 27일(월)에 찾은 곳은 탄케(Than Khe) 아동보호센터와 흙 빌리지(Hope Village)였다. 탄케는 전날 방문했던 곳과 같이 취약계층 아동과 고엽제 후유 아동을 지원하는 곳. 베트남전이 끝난 지 47년이 지난 요즘에도 고엽제의 다이옥신은 2~3세대 아동에게 기형을 유발하고 있었다. 오전에 탄케 아동센터를 방문한 봉사단원들은 바쁜 봉사활동 속에서도 전쟁이 남긴 서늘한 상흔에 마음이 저릿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떠올리며 보편적인 사회발전과 공리성은 글로벌 연대 속에서 이를 수 있음을 절감했다.



한편 오후에 방문한 ‘흙 빌리지’는 1993년 설립된 곳으로 다낭의 소외된 여성과 아동을 위한 기관이다. 이곳에서는 6세에서 18세 사이의 어린이 118명이 돌봄겨주하고 있으며, 이중 38명은 청각장애인, 고아 및 특별한 어려움을 가진 아이들이다. 한편 시설에서는 향후 아이들이 성장해 시설을 나가거나, 여성들이 자립할 때 독립적으로 살아가 수 있도록 돕는 직업 훈련이 진행된다. 월, 수, 목 오후 6~7학년 농아인 학생 대상의 컴퓨터 수업, 여성의 자립에 도움이 되는 재봉 수업 외에 자수클래스, 연하장 만들기, 쿠킹클래스

등 다양한 수업이 있다. 현재까지 흙 빌리지는 설립 이후 약 700명의 아이를 지역사회로 배출해 왔다. 한편 시설의 아동들과 놀이 봉사를 하며 친밀감을 쌓은 최장복 위원장은 재봉 수업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낯선 재봉틀 앞에서 멈칫대는 위원장의 모습에 교실은 금방 가르르 웃음이 터지고, 학생들이 능숙하게 재봉기술을 선보이며 소통의 시간을 보냈다.



또한 UCC 봉사단은 낡은 시설들을 손보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아동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흙 빌리지 곳곳의 목은 먼지를 털어내고, 녹이 잔뜩 쓴 운동장 놀이기구에 일일이 칠을 새로 했으며, 교실에는 하늘색 페인트칠로 새 옷을 입히느라 구슬땀을 흘렸다. 이러한 UCC 봉사단원의 활동으로 교실과 운동장 등 곳곳엔 금방 긍정적인 기운이 가득 찼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점점 다가올수록 UCC 봉사단의 마음은 급해졌다. 좀 더 많은 나눔과 희망을 전하고픈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다.

최장복 위원장은 아쉬운 봉사활동을 마치며 “UCC와 함께한 오늘이 좋은 추억으로 남길 바라며 늘 행복하고, 시설에 있는 모든 이들이 내일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나아가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또한 “UCC 활동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하지만 이번 활동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3년 만에 재개한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의 기쁨과 연대의 필요성을 깊게 느낀 UCC봉사단은 앞으로 멈춤 없이 나눔과 희망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함께할 것이라 다짐했다.

충청지방본부 박종오 위원장 본격적인 통합과 소통 활동에 앞장설 것

충청지방본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충청지방본부 조직은 통합 이전 충남은 25개 지부, 충북은 9개 지부로 나뉘어져 있었고 지난해 통합 이후 충청은 33개 지부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조합원은 1,455명입니다. 저희 지역은 조합원들의 고충을 풀어내기 위해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 소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충청지방본부는 충남과 충북이 과거에도 통합된 적이 있어 조직 간 이질감이 덜하고 충청 지역만의 문화적인 공통점이 있어 좀 더 친밀하고 안정적인 조직관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타 지방본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작년 충북이 재통합되면서 조합원들의 소외감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명, 한명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세대 간 요구사항과 바라는 관점들이 달라 조합원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는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어려운 점입니다.



2021년 활동 중 아쉬웠던 점과 올해 활동 계획은?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방문을 자주 못해 아쉬웠으나 올해는 잠잠해져 적극적으로 조합원에게 다가갈 예정이며 조합간부부터 단결된 모습을 보여 더 나은 조직관리를 위해 힘쓸 예정입니다. 또한 지부장들이 현장에서 조합원과 소통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충남과 충북이 하나 되는 통합의 리더십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취임 이후 통합을 위한 노력과 성과는?

자칫 충북 조합원들이 소외받고 위원장이 없어졌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 하에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제한적이긴 하나 틈틈이 충북 조합원을 만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또 충남, 충북의 화합을 위해 천안지부-충주지부, 대전지부-청주지부 등 크로스 충남/충북 권역회의를 통해 단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작년 활동 중 임직원 소통강화 프로그램 (Y-ON)과 '마음을 이어주는 클래식 (출근길 로비 콘서트)'가 이색적입니다.

대면 활동이 안 된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현장 방문을 많이 하지 못했는데 비대면 소통 프로그램을 진행해보니 조합원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고, 비대면으로도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문화 활동을 하지 못해 지친 조합원들에게 격려와 위로 차원에서 사기진작이 됐던 시간이라 더욱 기뻐했습니다. 무엇보다 광역본부에서 노동조합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줘 더욱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현석 광역본부장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지난해 '마음을 이어주는 클래식' '이동정책실' 등 현장 소통을 통해 조합원과의 거리를 좁히려 노력해온 박종오 위원장이 본격적인 소통행보를 예고했다. 다양한 자체 문화행사와 소통 기회를 늘려 본격적인 통합과 소통에 앞장서겠다는 것.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박종오 위원장이 그려나갈 충청지방본부의 통합 리더십을 만나본다.

작년부터 꾸준히 진행한 이동정책실 운영 소감과 앞으로의 각오 부탁드립니다.

조합원과 의견을 나누는 일에 다소 소극적이었는데 이동정책실을 통해 의견수렴뿐 아니라 직접 현장작업에 참여하면서 현장의 고충을 체험할 수 있었고, 조합원에게도 긍정적인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네트워크 최적화 관련 질문이 많아 인상적이었습니다. 조합원들이 최적화에 관심과 함께 스트레스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충청지방본부에서는 최적화와 관련해 오해나 궁금증을 없앨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충북지방본부에도 여러 변화가 생겼을 것 같습니다.

조합원과 함께하는 노동문화제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조합원의 반응도 매우 좋았습니다. 전체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는 자체 문화행사를 추진해 조합원과의 다양한 스킨십 활동을 마련하려 합니다. 또한 조합원과의 소통 기회를 늘리기 위한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며, 근로환경 개선 등 조합 활동의 기본인 활기차고 행복한 근무 여건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충청지방본부 위원장으로서 조합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에 힘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주 대면하여 더 소통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조합원이 어렵고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충청지방본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차’하는 순간 당하는 전자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예방과 대처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휴대전화 스팸 신고량은 연평균 9.6%씩 증가했으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사기 방법 역시 해마다 지능적으로 진화 중이다. 스팸 전화 차단과 피싱 사기 유형 및 대처 방법을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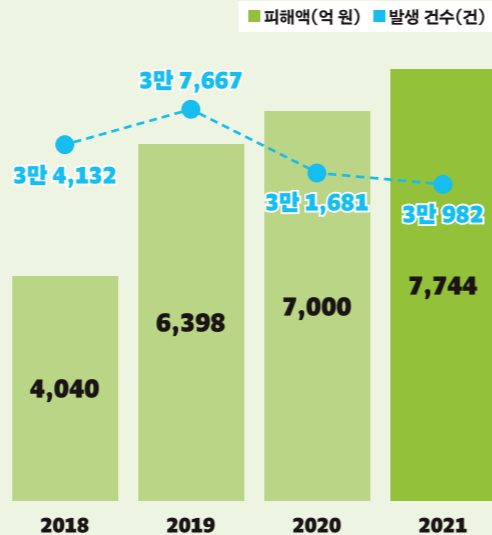
보이스피싱에도 유행이 있다

가장 보편적인 사기 유형은 보이스피싱이다. 주로 금융기관이나 유명 전자 상거래 업체를 사칭해 불법적으로 개인 금융 정보를 빼낸다. 또 국가기관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 속이고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최근에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수법은 ‘스미싱’이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범죄(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이용해 악성앱을 깔게 해 휴대폰을 해킹, 개인정보를 알아내 소액결제를 하는 금융사기다. 자신도 모르는 ‘수십만 원의 해외 결제 승인’ 문자를 받았다면 스미싱일 확률이 높다. 이러한 수법의 스미싱은 설, 추석 명절에 택배 문자로 변형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등장한 수법은 ‘큐싱’이다. QR코드를 통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기법. QR코드를 통해 악성코드에 감염된 스마트폰은 가짜 금융 사이트나 앱으로 연결돼 중요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한다.

보이스피싱 피해액과 발생 건수 <자료: 경찰청>



피해 후 대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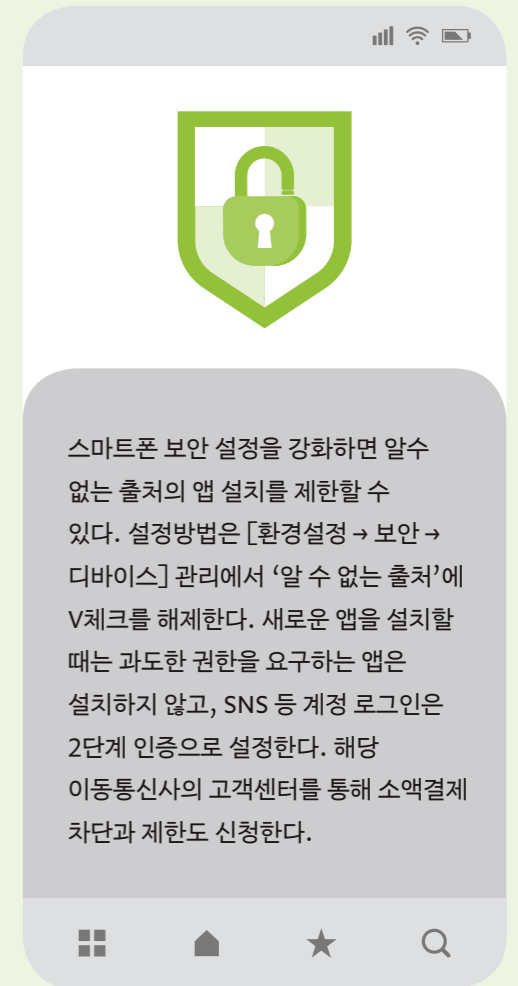
아무리 조심해도 ‘아차’하는 순간 당하는 것이 전자금융사기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것을 알아차렸다면 당장 설치한 앱과 공인인증서를 삭제하고, 경찰(112)과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전화해 상담받아야 한다. 앱 삭제가 어렵다면 인터넷 연결을 끄는 것도 방법이다. 또한 경찰서에 보이스피싱 피해 접수를 한 후 신고접수 확인서와 피해구제 신청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3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단, 이와 같은 절차는 피해를 당한 직후에만 신청할 수 있다. 또 은행의 경우 100만원 이상 입금 받은 계좌는 30분간 출금과 송금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반드시 30분 내에 지급정지 신청이 이뤄져야 한다.

금전적인 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신규 계좌개설, 뜻하지 않은 대출 실행, 휴대전화 개설 등 2차 피해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점검해 2차 피해를 예방한다.

알아두면 유용한 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 pd.fss.or.kr	신분증, 카드정보, 비밀번호 등 피해 사실을 등록
계좌정보통합관리 www.payinfo.or.kr	명의도용 계좌개설 여부 조회
명의도용방지 www.msafar.or.kr	이동전화 가입 실시간 열람 및 신규가입 사전 차단
보이스피싱 지킴이 www.fss.or.kr	피해 사례, 체험관, 신고처 안내 등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 제공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fine.fss.or.kr	금융회사 실제 존재 여부 조회 가능
대출성 상품모집인 조회 www.loanconsultant.or.kr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등록된 대출모집인 여부 조회

스마트폰 보안은 이렇게!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강화하면 알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설정방법은 [환경설정 → 보안 → 디바이스] 관리에서 ‘알 수 없는 출처’에 V체크를 해제한다. 새로운 앱을 설치할 때는 과도한 권한을 요구하는 앱은 설치하지 않고, SNS 등 계정 로그인은 2단계 인증으로 설정한다. 해당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 차단과 제한도 신청한다.

백신 프로그램은 최신으로 업데이트해 유지해야 하며, 스마트폰에 비밀번호 또는 화면 패턴을 설정한다. 또 보안카드·비밀번호 등의 중요한 정보는 저장하지 않는 게 안전하다. 만약 스마트폰을 교체한다면 개인정보 등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거나 초기화해야 한다.

예술과 커피향 가득한 낭만 여행

사진자료 / 한국관광공사

강릉

여름철에 가장 어울리는 여행지를 꼽으라면
첫 번째는 '바다'일 것이다.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KT의 휴양시설도 있어
더욱 알뜰한 여행이 가능하다.

바다와 커피의 낭만이 살아있는 강릉과
숲과 바다가 공존하는 안면도에서 휴식을 취해보자.
조합원을 위한 조금 특별한 여행지도를 공개한다.



안반데기

해발 1,100m 고산지대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채소단지. 산 전체를 뒤덮은 푸른 밭과 맞닿은 하늘이
만들어내는 풍경은 고요한 평화와 신비로움을 느끼게
한다. 봄에는 푸른 호밀 초원이, 여름에는 감자꽃과
고랭지 채소가 산을 뒤덮는다. 안반데기 주차장
반대편에는 여름 한 철에만 문을 여는 카페가 있다.

- 강원도 강릉시 안반덕길 428
- 033-655-5119



안목해변 커피거리

전국에서 아름다운 커피 거리로 손꼽히는 곳. 강릉이
커피의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긴 해안선을 따라 자리한 카페에는 저마다
특별한 디저트를 팔고 있다. 최근에는 안목해변에
유명한 수제 버거집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 강원도 강릉시 창해로14번길 3
- 033-660-3887



월화거리

강릉역부터 부흥 마을에 이르는 2.6km 구간의
폐철도를 따라 조성된 도심공원으로 최근 인기가 가장
뜨거운 곳. KTX가 개통하면서 옛 지상 철길을 공원화한
것. 월화거리는 말나눔터공원, 힐링숲길, 임당광장,
월화교, 월화정 등의 테마길이 조성돼 있으며
월화풍물시장에서 다양한 지역 음식도 맛볼 수 있다.

- 강원도 강릉시 금성로11번길 9
- 033-640-4565



하슬라아트월드 피노키오미술관

해양 절벽에 조성된 예술 공원으로 '하슬라아트월드'
에는 현대미술을, '피노키오미술관'에는 피노키오를
주제로 다양한 조각품과 마리오네트 인형 등을
전시한다. 미술관 건물과 이어지는 조각공원 등은 그
자체로도 거대한 예술 작품이다.

- 강원도 강릉시 울곡로 1441
- 033-644-9411

숙소 정보

신청 방법 kate → ERP → 복리후생 → 신청 → 휴양시설 모바일 KATE → 마비서 → 휴양시설 신청 문의 1577-1864(KT commerce)			
아일랜드 리솜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꽃지 해안로 204 041-671-7000	강릉타임스호텔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현화로 455-34 033-530-4800
체스터튼스속초	강원도 속초시 교동 1024-1 033-632-0001	설악금호리조트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795-4 033-636-8000

강원지역 조합원이 추천하는

강릉의 맛



초당순두부

강릉 초당마을의 두부는 바닷물을
간수로 이용해 두부가 부드럽고,
고소하기로 유명하다. 1930년 고 조동인
할머니가 처음 간수 아닌 바닷물로 두부를 만든
것에서 유래했는데 지금은 골목 전체가 순두부
요리를 판매한다.

초당고부순두부

매일 아침 만드는 부드러운 순두부와 얼큰한 전골이
유명하다.

-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587번길 17
- 033-653-7271

동화가든 본점

짬뽕순두부의 원조집으로 유명하다. 짬뽕의 불맛과
얼큰 시원한 국물, 고소한 순두부의 맛이 일품이다.

- 강원도 강릉시 초당순두부길77번길 15
- 0507-1432-9885

막국수

강릉은 '막국수'의 고장이다.
살얼음이 동동 뜬 동치미 육수에
말아먹고, 매콤달콤 양념에 비벼
먹기도 좋은 막국수의 장점은 식재료와
조리법에 따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메밀은 몸의 체온, 습기, 열을 내려주고
소화를 돕는 효능이 있어 여름에 먹어야 제격이다.



남산막국수

봉평 메밀 100% 면으로 메밀의 향과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감자전을 함께 먹는 것을 추천한다.

- 강원도 강릉시 강변로 226
- 033-645-2739

해동막국수

강릉 현지인이 찾는 막국수 맛집으로 유명하다.
비빔막국수에는 가자미시해가 들어간다.

- 강원도 강릉시 가작로274번길 4
- 033-652-0777



술과 바다, 심이 있는 여행

안면도

사진자료 / 한국관광공사



꽃지 해변

태안 8경 중 하나로 꼽히는 할미바위, 할아비바위가 어우러져 그림같은 풍광을 보여주는 곳. 특히 2개 바위 너머로 붉게 물드는 낙조는 태안을 상징한다. 넓은 백사장을 따라 해당화가 지천으로 피어 '꽃지'라는 이름을 얻은 이곳은 일년내내 여행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연리



라암도 해양낚시공원

안면도 바다 위에서 이색적인 바다낚시를 즐길 수 있는 체험 공원. 봄철에는 우럭, 여름에는 조기가 제철이다. 바다 위에서 낚시하며 보내는 하룻밤의 특별한 경험은 낚시 초보에게도 즐거움을 선사하기에 충분하다. 낚시만 즐기고 싶다면 펜션 예약없이 배만 따로 예약할 수 있다.

📍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318-53(나암도항)
🌐 www.sea-fishing.co.kr

태안군

팜카밀레 허브농원
청산수목원

동산포

유라기 박물관

안면도

일송꽃게장백반

만독통나무집식당

꽃지 해변

아일랜드 리스

라암도
해양낚시공원

이원식당

원종식당



팜카밀레 허브농원

국내 최대의 허브농원으로 약 200종의 허브와 500여 종의 야생화, 150여 종의 습지식물이 조성돼 있다. 캐모마일·로즈·칼라·보태니컬·와일드가든·라벤다가든 등 7개의 테마가든과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허브 빵과 각종 허브로 만든 음식으로 오감이 즐겁다.

📍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우운길 56-19
☎ 041-675-3636



유라기 박물관

국내 최대의 공룡진품화석을 보유한 자연사 박물관. 중생대 유라기와 백악기 시대의 공룡을 전시하고 있다. 공룡 시대를 체험하는 VR체험관과 교육 체험장도 운영 중이다. 박물관 맞은편에는 천문우주과학관 '별뿔별 하늘공원'도 놓치지 말고 둘러보자. 특히 천체투영관에서 보는 밤하늘 별자리 투영 및 3D 가상 별자리 여행이 볼만하다.

📍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고평로 37-18
☎ 070-4404-4667-8, 041-674-5660



청산수목원

연, 수련, 꿀창포 등 200여 종의 습지식물을 비롯해 홍가시나무길, 밀레 정원, 삼죽오미로공원, 황금 메타세콰이어 길 등이 조성돼 있다. 홍가시나무길은 포토존으로도 유명해 가족이 함께 산책하기 좋다.

봄(4-6월) : 홍가시나무·꿀창포축제
여름(7-8월) : 연꽃축제
가을(9-11월) : 팜파스글라스·단풍축제
📍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연꽃길 70
☎ 041-675-0656

충청지역 조합원이 추천하는

안면도의 맛



계국지

계국지는 안면도만의 별미다. 간장게장 국물에 배추나 무청을 넣어 버무린 걸절이김치를 넣어 끓인 탕으로 일반적인 찌개나 탕보다 담백하고 국보다는 진하다. 얼큰하면서도 게장에서 우려나오는 감칠맛과 시원한 맛이 특징이다. 다른 지역에선 맛볼 수 없는 안면도 향토음식이라 찾는 이들이 많아 식당도 여럿이지만 맛의 편차가 있어 자신에게 맞는 음식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일송꽃게장백반

꽃게요리 전문점으로 계국지를 포함해 간장게장, 양념게장, 꽃게탕, 꽃게쌈장 등이 인기다.

📍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연리 755-5
☎ 041-674-0777

만독통나무집식당

현대인 입맛에 맞게 선보인 원조 계국지 맛집. 건새우와 들깨를 넣어 진한 육수가 특징.

📍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조운막터길 23-22
☎ 041-672-8808

박속밀국낙지탕

충남 태안반도 지역의 낙지탕은 '박속'이 들어가는 게 특색이다. 박속을 넣고 끓인 국물에 낙지를 사부사부처럼 데쳐 먹은 후 수제비나 칼국수를 추가해 다시 끓이면 밀국이 완성된다. |이 지역에선 밀가루로 만든 국물 있는 음식을 '밀국'이라 했다. 다른 양념 없이 박과 채소, 낙지가 들어간 국물은 담백하고 시원하다. 특히 6~7월은 세발낙지가 많이 잡히는 계절로 여름 보양식으로도 인기가 높다.



원종식당

재료가 떨어지면 문을 닫기 때문에 방문 전에 미리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원리로 841-1
☎ 041-672-50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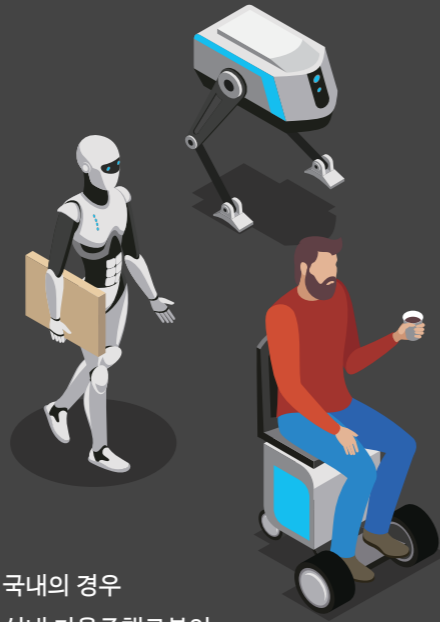
이원식당

박속낙지탕 원조식당으로도 알려졌다. 박속과 낙지만 넣어 끓인 '박속낙지탕'과 칼국수와 수제비를 넣은 '박속밀국낙지탕'이 따로 있다.

📍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원리로 1539
☎ 041-672-8024

‘통신사 빅3’, 로봇 시장을 잡아라!

4차 산업혁명의 현실화와 비대면 산업의 성장 속에 로봇 시장이 당장 선점해야 할 산업으로 부상하자, KT를 포함해 국내 이동통신사는 탈통신을 선언하며 로봇 시장으로 빠르게 진입 중이다. 초고속·초연결·초지연의 5G를 기반으로 AI·빅데이터·클라우드 역량을 융합해 미래 서비스 로봇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판단이다.



위드 로봇 시대의 개막

코로나19로 비대면과 자동화가 일반화되면서 음식, 배송 서비스, 의료서비스, 청소, 보안, 건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 로봇이 활용되며 서비스 로봇 시장이 꾸준히 성장 중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는 전 세계 서비스 로봇 시장이 2024년 1,220억 달러(약 155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을 예측했고, 국제로봇연맹(IFR)은 서비스 로봇 시장이 연평균 23% 이상의 성장세를 전망했다. 한편 KT 경제경영연구소는 국내 로봇 시장의 중심축이 제조 로봇 위주에서 서비스 로봇 시장 중심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의 경우 실내 자율주행로봇인 식당 서빙로봇은 이미 대중화 단계에 와 있고 배송, 순찰와 같은 실외 자율주행로봇 기술도 이미 확보된 상태다. 정부 역시 지난 2020년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며 지능형 로봇법 개정을 서두르는 등 ‘위드 로봇’ 시대를 준비해왔다.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주차장 로봇을 제도화하는 개정안을 올해 6월까지 행정예고 하면서 9월부터는 로봇의 주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서울 관악구는 ‘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를 실증 중이며, 관계부처는 연내 지능형로봇법 개정과 자율주행 관리체계 마련 및 규제 특례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위드 로봇’이 빨라지면서 국내 로봇 사업에 가장 촉각을 세우고 있는 곳은 이동통신 3사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로봇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선 빠른 데이터 수집과 정보처리를 위해 통신사의 초고속 통신기술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 로봇 업체들은 통신사와의 협력 확대를 통해 AI와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으로 불리는 ABC 인프라와 5G를 기반으로 로봇 서비스 경쟁을 나섰다.

KT, 고객맞춤형 ‘로봇 서비스 플랫폼’ SKT, AI로봇 물류 본격 추진

‘AI 로봇 사업단’을 운영 중인 KT는 지난 2020년 6월 현대중공업그룹과 전략적 투자 협력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 KT 기업전용 5G와 클라우드, 스마트팩토리 플랫폼을 현대로보틱스 로봇에 접목한 ‘5G 스마트팩토리 산업용 로봇’을 선보였다. 또한 2020년 9월부터 어린이와 고령층을 위한 차세대 AI 케어로봇 개발에 착수,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에는 서빙로봇을 상용화했다. 매장 환경분석, 매장 공간에 맞춘 3D 맵핑, 매장별 사용 시나리오 분석, 고객 방문 빈도, 동선 패턴 분석 등 다양한 기술 역량이 반영된 KT 서빙 로봇은 소상공인 고객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최근에는 최신 방역 기술과 AI 로봇을 결합한 ‘KT AI 방역로봇’을 선보이는 등 사업 영역을 빠르게 확대하며 고객 맞춤형 ‘로봇 서비스 플랫폼’ 비즈니스 추진을 공식화했다. 단순 제품 판매가 아닌 로봇 설치, 플랫폼 사용, 원격 관제, 매장 컨설팅, 현장 AS 출동, 전용보험 제공 등을 동시에 경험하는 KT 로봇 플랫폼 기반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이에 KT는 앞으로 배송과 물류, 환경, F&B 등 신규 영역으로 서비스 플랫폼을 꾸준히 확장할 계획이다.

SKT의 주력하는 분야는 물류서비스다. SKT는 최근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 씨메스(CMES)에 100억 원의 신규 투자를 포함해 AI 로봇 물류 분야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씨메스는 AI와 3D 머신 비전 기술을 기반으로 로봇 자동화 공정을 혁신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로봇 대중화를 이끌고 있는 AI 로봇비전 스타트업이다. SKT는 2020년 하반기부터 씨메스와 ‘AI 물류 이·적재 로봇’ 사업을 준비해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비정형 상품을 분류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폐기물 운반로봇, 자외선(UV) 살균로봇, 사이니지로봇 등의 로봇 서비스로 차별화했다. 지난해 11월에는 H+양지병원에 통신 네트워크 기반 자율주행 약제 배송로봇을 공급하기도 했는데, 이 로봇은 항암제나 마약성 진통제 등 직원이 직접 운반하면 위험한 약품을 하루 2번 배송한다. 폐기물 운반 로봇, 살균·소독이 가능한 UV살균 로봇, 홍보 가능한 사이니지 로봇,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시간 통화가 가능한 로봇 등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 밖에 각종 로봇 기술의 실증을 준비 중인 LG유플러스는 지난해 9월 아마존웹서비스(AWS) 클라우드 기반 5G 코어망과 LG전자 로봇 서비스를 통합 수용한 일체형 MEC(모바일엣지컴퓨팅)를 통해 클라우드 로봇의 안정적인 자율주행을 실증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GS건설과 함께 5G 원격제어로 로봇의 도로 공사현장 실증에 성공한 바 있다.

초고속·초연결·초지연으로 대표되는 5G와 함께 일상 앞까지 성큼 다가온 로봇산업은 이제부터 속도전이다. 누가 먼저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한 발 더 빠르게 산업 대전환기를 선점하고 주도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현재까지 로봇 시장의 절대강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삼성전자, LG전자, 네이버 등 주요 ICT 기업들도 주목하는 로봇 시장이 통신 3사의 미래를 결정할 승부처가 될 것은 분명하다.

거, 지구 혼자 쓰나?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다

최근 가수 사이의 콘서트를 두고 온라인에서 난데없는 공방이 벌어졌다.

콘서트에서 물을 뿌리는 형태의 이벤트를 기획하면서

회당 식수 300톤 가량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배우 이엘이 자신의 SNS 계정에

“워터밤 콘서트 물 300톤 소양강에 뿌려줬으면 좋겠다”는 글을 게재하면서다.

“가뭄이 최악인 시기에 허공에 물을 뿌리는 축제는 부적절하다”라는 지적과

“단지 공연의 콘셉트일 뿐 특정 연예인만을 향한 엄격한 잣대를 거둬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혔다.

어떤 의견에 더 공감이 가는가?



최악 가뭄 속 물 낭비 논란

이미 10년이 넘게 계속해온 사이의 여름 공연이 올해 유독 비판을 받는 이유는 역대 최악의 가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이의 흠뻑쇼 1회당 소비되는 식수의 규모는 약 300톤으로 7주간 주말마다 열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총 4,200톤의 식수가 소모된다. 이 때문에, 다수의 농가가 가뭄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굳이 막대한 물을 소모하는 공연을 강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인 것이다.

반면 최악의 가뭄을 초래한 기후변화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수 한 명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흠뻑쇼가 물 낭비라면 워터파크나 골프장의 영업도 중단시켜야 한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실제 골프장의 경우 매일 약 1천톤의 물을 소비하는데, 지하수를 끌어다 쓰기 때문에 농업용수 고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흠뻑쇼를 비판하는 논리라면 물 사용량이 많은 영업장에 대한 규제도 도입해야 하는데, 특정 공연에 대해서만 비난이 집중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 이선옥 작가는 배우 이엘의 흠뻑쇼 비판 발언에 대해 “‘가뭄에 물을 뿌리며 콘서트나 하는 개념 없는 타인에게 일침을 가하는 정의로운 나’에 대한 과시”라고 지적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문제는 기후위기에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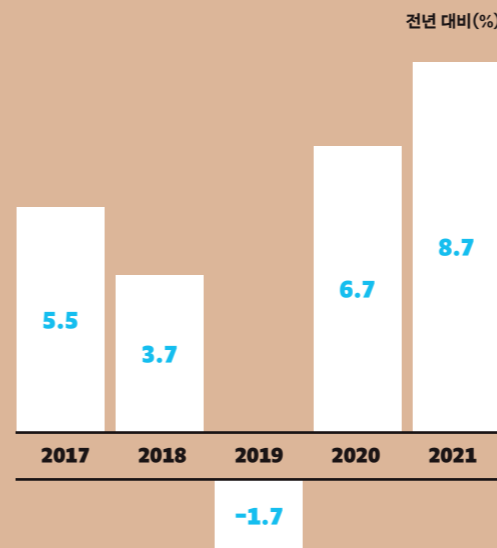
우리는 이 논란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저 찬반으로 갈라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정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다. 사실상 이 논란을 촉발한 것이 단순히 한 가수의 콘서트 기획이나 한 배우의 정의감을 앞세운 발언이 아니라 기후위기가기 때문이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봄 평균기온은 1973년 이후

가장 높았다. 여기에 5월 강수량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5월 말, 경남 밀양에서 5일 동안 타오른 불길은 축구장 1천 개를 합한 것보다 넓은 면적을 태웠다.

지구온난화, 기후 위기라 하면 대개 떠올리는 이미지는 녹아내린 빙하들 사이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서성이는 새하얀 북극곰 일가족이다. 하지만 북극곰 못지않게 우리도 어디로 갈지 몰라 서성이게 될지도 모른다. 지구온난화, 기후 위기는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고, 이는 우리가 먹을 농수산물 가격에 영향을 끼쳐서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요소수 파동’ 같은 ‘농수산물 파동’이 있을 수 있단 얘기다.

밥상물가 상승은 식량안보 걱정까지 증폭시킨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45%로 OECD 최저 수준인 데다 그중에서도 곡물자급률은 21%에 그친다. 2020년 환경부가 발간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를 보면, 2100년 쌀 생산량은 지금보다 25% 감소한다. ‘식량의 무기화’가 시나리오에만 있는 게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곡물 공급량 감소를 비롯해 지난해 이미 상승한 비료값과 에너지가 등 많은 요인이 식량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

최근 5년간 농축수산물 물가상승률 <자료: 통계청>



우크라이나(밀·귀리·설탕 등), 인도(밀), 인도네시아(야자유) 등의 공급 차질과 수출 제한에 이어 업계에선 아시아에서 주식으로 사용되는 쌀이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쌀은 아시아에서 주식으로 사용되는 데다 밀과 비료 가격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지난해 발표한 5월 식량가격 지수에 따르면 국제 쌀값은 이미 5개월 연속 상승해 1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나를 구함으로써 우리를 구하는 길

식량 문제뿐만이 아니다. 기후위기가 코로나19를 비롯한 또 다른 팬데믹을 또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는 이미 오래전에 등장했다. 더 큰 문제는 팬데믹이 그랬듯 기후위기 또한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속 한 장면을 떠올려 보자. 만인에게 평등하게 주어질 것 같은 폭우라는 기후재난이 부유층에게는 그저 잔디가 깔린 넓은 집 앞마당에서 비 오는 날의 캠핑을 즐기게 해주는 해프닝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저소득층에선 침수로 인해 역류하는 오페수 속에서 앞으로의 생존을 위해 돈이 될 만한 물건을 건져 내야 하는 사투의 현장일 뿐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군가에게 기후위기의 책임을 묻는 것은 실타래 풀듯이 간단한 일이 아니다. 기후 위기는 결국 우리 삶의 문제이고 개개인의 실천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오늘 내가 의미 없이 써버린 물이 어느날 내 밥상 위를 위협하게 되는 것은 필연이다. 가수의 이벤트를 말썸거리로 삼는 것은 의미 없다. 내가 먼저 행동에 나서고 그 행동에 누군가를 동참시킬 때 우리는 나를 구함으로써 우리를 구할 수 있다.

<파친코> 훨씬 가깝고도 낯선 시선, '코리아 디아스포라'

글 / 정지은



PACHINKO
“역사가 우리를 망쳐 냈지만
HISTORY HAS FAILED US, BUT NO MATTER
그래도 상관없다.”

2020년, 아르고미술관에서 열린 제58회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귀국전에서 이 문장을 처음 접하고 그 강렬함과 자신만만함에 매료됐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 전시 제목으로 쓰인 문장은 한국계 미국인 작가 이민진의 소설 <파친코>에서 왔다. <파친코>는 한국과 일본, 미국을 오가며 펼쳐지는 자이니치 4대의 수난과 투쟁을 그린 소설로, 최근 애플 TV+의 오리지널 시리즈로 제작되면서 재일조선인과 디아스포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영화 <미나리>는 어떤가? 배우 윤여정이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으면서 주목받은 이 영화는 1980년대 미국으로 이민을 간 가족이 함께 있다면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시골에서 농장을 만드는 여정을 보여준다.

두 작품은 장르도, 주제도 다르지만 한국과 미국, 일본을 오가며 경계인의 시선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닮았다. 한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쓰거나 연출했다면 전혀 다른 콘텐츠가 나왔을 것이다. 예를 들어 <파친코>에서 시련을 딛고 오사카 시장에서 김치를 팔기 시작하는 선자의 모습을 감정적이지 않게 다룬 장면이 그렇다. 한국 콘텐츠에서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악한 일본인’ 캐릭터는 등장하지 않는다.

주인공 모자수가 일본인 친구에게 하는 하소연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곳과 저곳 어디에서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고 경계에 서 있는 이들의 이야기는 전 세계 이민자들에게 공감을 이끌어 낸다. 실제 ‘디아스포라(Diaspora)’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 예를 들면 종교, 정치, 경제, 젠더 등의 이유로 생존의 위기 속에서 자신이 살던 곳으로부터 이동, 분리, 이주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다. 사실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대륙과의 통로는 막혀 있는 섬 아닌 섬과 같은 폐쇄적인 사회다. 한국이 발전하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많아졌지만, 이방인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은 사회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경험이란 낯설고 불편한 종류의 것이다. 잘 모를 때 누군가에 대한 편견은 쉽게 생기고,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쿠바계 한국인의 삶을 다룬 영화 <헤로니모>의 전우석 감독의 말대로 “이제는 한인 디아스포라가 그들의 이야기를 자신의 거주국에서 제작한 뒤 한국 모국에 소개하는 ‘시점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계가 영화 속에 담긴 ‘한국’을 주목한다느니, <파친코>나 <미나리>가 케이-컬처(K-Culture)의 확산이라느니 하는 호들갑 대신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비롯한 디아스포라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경계인의 관점을 공유해보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이다. 이들은 외국인들보다는 훨씬 가깝게 한국을 이해하고 들여다보고 있지만, 한국인들과는 사뭇 다른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본다. 그건 어쩌면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놓친 한국의 풍경일지도 모른다.

최초의 이민자가 인천 제물포항을 떠난 지

“고국으로 돌아간 조선인들도 달라진 게 없어.
서울에서는 나 같은 사람들을 일본인 새끼라고 불러.
일본에서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근사하게 차려입어도 더러운 조선인 소리를 듣고,
대체 우리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꼭 120주년을 맞는 지금, 여전히 낯선 ‘코리안 디아스포라’라는 말에 대해 국가와 민족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점으로 ‘그들의 삶 속에 담긴 역사 혹은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파친코>에서 가장 인상적이라고 꼽는 장면은 의외로 오프닝이다.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오늘을 위해 살아라.” 라고 말하는 The Grass Roots의 1967년 발표곡 <Let's Live for Today>가 흐르는 가운데 파친코 기계 사이에서 주인공들이 돌아가면서 춤을 춘다. 중간중간 삽입된 조선의 풍경과 춤, 동작, 노래 제목, 가사까지 어우러지면서, 개인의 인생은 역사를 견뎌내야 할 정도로 가혹하지만, 순간을 즐기면서 활짝 웃는 캐릭터들이 인상적이다.

“역사가 우리를 망쳐 냈지만 그래도 상관없다”는 소설의 첫 문장과 맞아떨어지는 드라마의 ‘경쾌한’ 오프닝 시퀀스야말로 <파친코>의 힘이자, 전 세계 대중문화 영역에서 ‘디아스포라’ 콘텐츠가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Info. 파친코(PACHINKO)
Apple TV+ | 8부작
감독 | 코고나다, 저스틴 전
출연 | 윤여정, 이민호, 김민하, 진하

글쓴이 정지은은 문화평론가, 디아스포라 영화제 자문위원. 영화제가 처음 시작되던 해부터 3회까지 인천문화재단 소속 실무자로서 초기 영화제를 세웠다. 이후 다양한 방식과 직·간접적 활동으로 영화제에 관여하고 있다.

주요소식

'22년 2분기
노사협의회사
4개 안건 의결

- 송파사옥 어린이집 신설
- 로봇 개통 지원을 위한 리프트 탑재 승합차 공급
- 배터리 충전 보관함 공급
- Kate 사내포털 고도화



2022년 2분기 노사협의회 결과

노사는 6월 22일(수) 11시, KT본사 분당사옥 17층 회의실에서 2022년도 2분기 정기 중앙노사협의회를 열고, 2분기 지방노사협의회 결과를 공유한 후 ▲로봇개통 지원을 위한 리프트 탑재 승합차 공급 ▲송파사옥 어린이집 신설 ▲배터리 충전 보관함 공급 ▲KATE 포털 고도화 등 4개 안건을 협의, 의결했다.

로봇개통 지원을 위한 리프트 탑재 승합차 공급과 관련해 노사는 2022년 3분기 내에 16대를 시범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2022년 4분기까지 송파사옥 어린이집 신설, 현장 조합원들이 사용하는 PDA 단말기 배터리, 드릴 충전기 배터리, IOT 안전모 턱 끈 모듈, 활성경보기 등을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 충전 보관함 공급'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KATE 포털 고도화는 2022년 3분기까지 메인페이지 디자인 간소화를 통해 조합원 사용 편의를 향상하기로 의결했다.

전국 소규모 지부
순회점검 및 조합원
간담회 실시



6월 14일(화)부터 17일(금)까지 전국 각 지부를 돌며 지부 조합간부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안을 공유했다. 이에 ▲지부실 각종 현황 및 홍보 게시판 정비 여부 ▲고충처리위원회 확인 ▲코로나19로 인한 안전한 방역사항 준수 ▲노동조합 관련 책자 비치 및 활용 여부 ▲소규모 지부 조합원 사기진작 방안 및 부서장 간담회 실시 ▲우리사주 관련 점검 등을 통해 조직안전에 만전을 기했다.

이번 현장 순회는 조합원 50인 이하 지부의 조합원 및 부서장을 만나 소규모 지부 조합원들의 애로사항 청취에 좀 더 중점을 두었다. 한편 현장순회를 이끌고 있는 노동조합 김인관 조직처장은 2022년도 단체교섭의 방향을 설명하며 “조합원들의 바람에 부합되도록 연초부터 많은 고민과 연구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뒤 “지부장 혹은 전화나 메일을 통해 언제든지 의견을 제시를 해주시면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할 방침이니 좋은 고견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14대 집행부 공약사항
'고용안정위원회'
개최



노사는 5월 30일(월) 오후, 제1차 고용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논의를 주고받았다. 이는 14대 집행부 공약사항이면서 지난 2021년 단체교섭에서 합의한 고용안정 관련 노사 합의에 근거한 것으로 통신산업의 구조적 변화 필요성과 급변하는 시장환경 및 다양한 환경 리스크에 따른 조합원의 일자리 유지를 위한 연구, 토론의 자리였다.

논의 의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5G, AI 등 통신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노동환경 영향분석 ▲DIGICO 성장을 위한 미래인력 대응방향(직무재편) 및 종사원 경쟁력 강화방안 ▲기타 노사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협의한 고용안정 관련 주제, 안건 등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진행된 '조합원 경쟁력 강화방안' 논의에서 노동조합은 전년도 최적화 진행 시 발생한 문제점들을 지적했고, 이에 회사는 '노동조합 의견에 공감하며 향후 충분한 사전 준비 후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고용안정위원회 운영위원은 노사 양측 6명씩으로 구성했으며 운영 주기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나, 안건이 있을 시 수시로 열릴 계획이다.

조합원과 함께하는
노동문화제



최장복 위원장은 6월 22일(수), 강북지방본부 강서지부 노동문화제에 참석하여 조합원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노동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간격의 없는 소통으로 괴리감을 해소하고 현장중심의 정책개발 및 문화체험을 통한 조합원 단합 및 단결력 확보를 위한 노동문화제는 전국 지부별로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날 강서지부를 찾은 최장복 위원장은 조합원이 즉석에서 건의한 비품 교체 요청에 대해 바로 구매토록 조치했으며, “올해 단체교섭은 전년도에 미진했던 부분에 중점을 두어 조합원의 요구와 기대에 부족함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KT명장 선발 접수 시행

현장 우수 기량자에 대한 인정과 명예 부여로 동기부여 강화 및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6월 29일(목)까지 KT 명장을 선발 접수를 진행했다.



노동조합, 2022년 신입 조합원 특강 실시

6월 8일(수) 그룹인재개발실 원주연수원에서, 54명의 신입 조합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고 KT노동조합의 역사와 노동조합의 역할, 노동조합 구성과 조직 소개, KT복지제도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 조합간부 역량강화교육 시행

5월 27일(금), 제14대 조합간부 역량강화교육 3기수 퇴소식을 열고 지난 5월 16일부터 진행했던 일정을 마무리했다.

복지

하반기 리프레시 휴직 신청접수

신청대상 | 전체 직원(상무보/임원/계약직 제외)

- 휴직 시행일 전 최근 6개월 이상 정상 근무자 (휴직, 교육파견 등으로 정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 신청불가)
-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자(휴직복귀 예정일 기준)
- 징계처분 받은 경우 징계처분 기록말소 또는 사면 시 신청 가능

휴직 신청기준(기간/급여)

- 신청기준 : 재직기간 동안 최대 3회, 6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재신청자는 잔여기간 내 신청)
- 급여사항 : 월 기본급의 80% 지급(성과급, 제 수당 등 미지급)



우리사주 청약에 따른 대출적합성 검증 진행

청약 조합원을 대상으로 대출적합성 검증 및 약정 절차를 6월 23일(목)부터 7월 1일(금)까지 진행했다.



제3차 산하조직 대표자회의서, 6월 주요 추진계획 등 논의

6월 3일(금) 오전 11시, 중앙본부 대회의실에서 전국 7개 지방본부위원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제3차 산하조직 대표자회의를 열고 실적보고 및 6월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1) 최초 사용자('22.7.1 이후)

실 근속년수	신청가능 기간	휴직 중 급여
10년 이상	6개월 또는 12개월	6개월(유급) → 6개월(무급)
20년 이상	6개월 또는 12개월 또는 18개월	6개월(유급) → 6개월(유급) → 6개월(무급)

* 실 근속년수 기준 : 정년휴직 기간 제외,
그룹사 전출은 근속기간에 포함

2) 재 신청자('22.7.1 이전 리프레시휴직 사용자)

실 근속년수	신청가능 기간	휴직 중 급여
10년 이상	6개월(유급)	6개월(무급)
20년 이상	6개월(유급)	6개월(유급) + 6개월(무급)
30년 이상	12개월(유급)	6개월(무급)

추진일정

- 선발자 확정 : 6월 22일(수) ~ 6월 23일(목)
- 업무인수인계 : 6월 24일(금) ~ 6월 30일(목)
- 휴직 및 발령일 : 2022년 7월 1일



2022년 2분기 희망퇴직 신청 접수

2022년 2분기 희망퇴직 시행에 따라 희망하는 조합원의 신청을 6월 14일(화)까지 접수했다.



2022년 5월 성과급 지급

5월 25일(수) 현재 재직 중인 G직(청원경찰 포함)을 대상으로 2022년 5월 성과급을 지급했다.



우리사주 청약 신청 접수

케이티 우리사주조합에서는 우리사주조합원을 대상으로 우리사주 청약 신청을 6월 15일(수)까지 접수했다.



'22년 3분기 시니어 컨설턴트 선발

정년퇴직하는 조합원의 숙련된 기량을 지속 활용하기 위해, 직무 전문성이 높은 정년퇴직(예정)자를 재고용하는 제도로써 2022년 3분기 시니어 컨설턴트를 선발했다.



2022년 상반기 내일설계휴직 시행안내

만 50세~만 58세 미만 조합원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내일설계휴직을 시행했다. 지원분야는 자격증 취득, 창업, 재취업 등 개인이 희망하는 모든 분야에서 신청 가능하며 휴직 기간은 최대 4년까지다.

Q&A로 알아보는 KT 우리사주 청약 공모증



아시다시피 KT 우리사주 조합에서는 우리사주 조합원을 대상으로 청약 신청을 받았습니니다.

우리사주 제도는 주가 이득 + 배당 이득 + 연말정산 이득 + 배당소득세 비과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우수한 제도로 다른 회사들도 이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지요.

오늘은 가입하신 분들의 궁금증을 모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사주 가입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무엇인가요?

- 청약 1은 금융기관 대출에 회사가 15% 매칭을 지원합니다.
- ① 개인별 취득한 주식 수의 15% 지원(아래 표 참조)
- ② 7년 거치 후 일시상환, 거치기간 중 대출이자 100% 지원

개인 취득 주식 수	회사 15% 매칭	총 주식 수
48주	83주	631주

주당 배정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배정가격은 총 매입금액을 총 매입주식 수로 나눈 평균 단가로 결정됩니다.

• 청약 2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출 지원입니다.

① 100만 원 상당의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출
② 1년 거치 후 일시상환, 무이자/무담보

혜택이 괜찮네요~

우리사주는 언제 개인계좌로 인출할 수 있나요?

개인 취득 주식
의무예탁기간 종료 또는 퇴직 시 인출 가능.

회사 지원 주식
의무예탁기간 종료 또는 퇴직 시 퇴직종류와 의무예탁 잔여기간에 따라 인출가능 여부가 상이함.

※ 단, 대출을 통해 취득한 경우 인출 전 대출금 전액을 먼저 상환해야 합니다.

한국증권금융을 통해 청약금액을 대출하는 경우 개인 DSR 한도에 포함이 되나요?

개인 DSR 한도와 관계없이 가능하지만 이후 타금융기관 대출 시에는 우리사주 취득 자금 대출금이 한도에 포함해 계산됩니다.

DSR에 포함되는 원리금상환액 상환 기간은 5년에서 8년까지 금융기관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5~8년

※ 부채증명서는 한국증권 금융 홈페이지에서 발급

한국증권금융 대출금 상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구분	상환 기한	상환 방법
퇴직 시	3개월 내 해당기간 이자 본인부담	대출금 전액 입금 또는 주식 매도를 통한 대출금 대환
만기 시	즉시	

기간과 방법은 이표를 참고하세요.

퇴직 후에는 조합원 자격상실로 대출이자 지원은 중단됩니다.

※ 단, 기한 내 미상환 시 한국증권금융에서는 해당 주식을 강제처분해 대출금을 상환, 잔여 이익 발생 시 개인계좌로 입금, 손실 발생 시 개인부채로 처리함

우리사주 취득 시 어떤 세제 혜택이 있나요?

본인 취득금액 연간 400만 원 한도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의무예탁기간(1년) 경과 후 인출 시 보유기간에 따라 소득공제 받은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가 근로소득에 다시 포함됨

인출 불가 인출 시 전액 과세 인출 시 50% 비과세 인출 시 75% 비과세

▲ 취득 ▲ 1년 후(인출 가능) ▲ 3년 후 ▲ 5년 후

우리사주조합에 예약되어 있는 우리사주는 배당 소득세 15.4%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단, 예약일로부터 1년 이내 인출 시 배당소득세 과세

대출금 중도 일부상환 가능한가요?

한국증권금융 홈페이지나 앱에서 일부 또는 전액상환이 가능합니다.

별도 상환 수수료도 없네

일부상환 시 우리사주도 일부 인출할 수 있나요?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만 전부 또는 일부 인출이 가능합니다.

아셨죠? 우리사주조합원 여러분의 자산을 잘 관리해 보세요~!!

KT 우리사주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을 더 좋은 소식을 만드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터>를 읽은 느낌과 생각을 퀴즈 정답과 함께 메일로 보내주세요.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전남/전북광역본부 컴플라이언스팀 김중민

소식지 [터]를 통하여 노동조합의 여러 소식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특히 만화로 보여주는 '2022년 1분기 정기 중앙노사협의회 달라지 4가지 혜택'처럼 조합원들이 알기 쉽고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해줘 소식지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통신시장이 경쟁을 통해서 더 발전하기도 하지만 쇠퇴하기도 하는 만큼 국내·외 경쟁사 소식도 게재해 조합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KT를 더 키워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도움을 주시길 희망합니다.

Customer부문 Customer BDO 그룹미디어

플랫폼통합프로젝트 그룹 김현지

주기적으로 비치된 <터>를 계속 봐 왔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다 읽어 보았습니다. 임직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와 회사 소식, 인사이트 있는 글 등 생각보다 다양한 내용이 있어 앉은 자리에서 후딱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강남/서부NW운영본부 경기남부엑세스운영센터 남수원운영팀 박창근

요즘 100세대 시대라는데 KT노동조합도 100주년이 되기까지 조합원들과 회사를 위하여 봉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서지사 마케팅부 소매영업팀 백윤희

2022년 달라진 4가지 혜택을 보기 쉽게 만화로 풀어주셔서 재미있게 봤습니다. 혜택을 빼먹지 않고 잘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대전지사 유성지점 CM2팀 윤기춘

노동조합의 다양한 소식이 담겨있어 항상 잘 읽고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그룹인재개발실 현장훈련담당 B2B영업교육팀 원재희

KT 임직원 복지 관련 제도를 QR코드로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소식지 한장 한장에 노동조합의 수고가 보입니다.

강남/서부법인고객본부 남부법인고객1담당 Biz지원부 평택Biz지원1팀 이원형

조합원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고 힘을 많이 얻습니다. 새로운 이슈와 직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은 충실한 콘텐츠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nterprise서비스DX본부 융복합DX사업담당 서비스DX기획팀 이정민

소식지를 읽고 KT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전남/전북광역본부 컴플라이언스팀 임현수

소식지를 읽고 다시 한번 노동조합의 존재와 의미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 제6대 위원장이셨던 김호선 전 위원장님 인터뷰와 이남권 호남지방본부 위원장님 현장 활동 내용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강남/서부NW운영본부 강남서부코어운영센터 강남코어망제어부 VoLTE운영팀 정용배

오랫동안 KT와 조합원들을 위해 열심히 뛰며 활동했던 40년사 기사에 KT 일원으로서 가슴 깊이 뭉클함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조합원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새로운 비전·가치·전략을 위해 도약하는 KT노동조합4.0이 되길 응원합니다. 파이팅!

KTTU 초성 QUIZ

네모 칸 속 초성과 힌트를 읽고 낱말을 완성해 보세요.

정답과 함께 소식지 [터]를 읽고난 소감을 메일로 함께 보내주시면 선별하여 문화상품권(2만 원)을 보내드립니다.
[예 : L D S S → 노동조합]

보내실 곳 : mabin@kt.com(김민수 편집국장)

○ ×

지난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약 2주에 걸쳐 '제14대 집행부 전국 조합간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 지역의 이름. (8페이지 참고)

○ ○ ○

기업 간 노사협의체 UCC(Union Corporate Committee)가 3년 만에 활동을 재개하며 2박 3일 동안 글로벌 봉사활동을 펼친 국가. (14페이지 참고)

○ ○ ○ ○

해발 1,100m 고산지대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채소 단지. 떡을 칠 때 쓰는 가운데가 우묵하고 넓은 통나무 판의 이름과 평평한 땅을 가리키는 강릉 사투리가 합쳐져 지명이 됐다. (22페이지 참고)

KT 임직원 감사 답례품(기프티쇼) 할인 안내

최대할인
10%

임직원님의 애경사를 같이 해주신 분께 답례 시,
조금이나마 편익을 드리고자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쇼)을 할인해 드립니다.

★ 이용 방법 및 절차

- 다운플랜 홈페이지 (daonplan.com) > 소식 > 회사소식에 공지 확인
- 첨부엑셀 양식 기입 후 다운플랜 이메일로 전송 (메일 : daonplan1555@naver.com)

★ 할인 안내 (판매가 금액 합계)

금액대 구간	할인율
30만 원 이상 ~ 100만 원 미만	3%
10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5%
2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	7%
400만 원 이상	10%

발신번호 별로 할인을 책정하며, 할인율은 상품 판매가 합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최초 구매 시 상품 판매가 합계 기준 최소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최초 구매 후 추가구매는 7영업일 내에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최초 구매 시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ex) 최초 구매 100만 원 : 5% 할인 적용

→ 추가구매 20만 원 : 5% 할인 적용

추가구매로 인한 누적금액의 합산 할인율 적용은 불가합니다.

ex) 최초 구매 50만 원 : 3% 할인 적용 / 추가구매 150만 원 : 5% 할인 적용

→ 최초 구매 50만 원에 대해 추가 2% 할인 적용 불가

★ 유의 사항

- 해당 기프티쇼는 B2B 프로모션 선물용으로 유효기간은 60일이고 연장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 해당 기프티쇼는 유효기간 도래 전 안내문자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KT멤버십 중복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선물용이기에 본인 사용용도로 구매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선택 가능한 상품은 물품교환형입니다.
 - 부득이 금액형 또는 상품권 등 일부 상품 선택 시 할인 미적용 및 판매가 합계 시에도 산정 제외
- 신청 시간(영업일 09:00~17:00) 이후 신청 시 익영업일 발송됩니다.

★ 할인 예시

브랜드	상품명	판매가격(원)	수량(개)	소계	비고
스타벅스	아이스 카페 아메리카노 Tall	4,100원	100	41만 원	커피 1잔
스타벅스	부드러운 디저트 세트	12,700원	100	127만 원	커피 2잔, 조각 케이크 17개
베스킨 라빈스	마음요 드려요	26,000원	30	78만 원	아이스크림 케이크
판매가 합계					246만 원

→ 7%할인 (172,200원)된 금액 2,287,800원을 입금

문의 다운플랜 1577-1555 (ARS 3번)

아플 때  힘이 되는

가족사랑 헬스케어 서비스

· 헬스케어서비스란? 일상생활에서의 건강관리부터 질병 발병 후 치료 지원의 단계를 면밀히 관리해 드리는 서비스

 헬스 콜 서비스 1577-1555 → 4번



- 지원 대상 다운플랜 회원과 직계가족
- 이용 시간 24시간 365일

일상 케어 ⁺

- 건강상담
- 병원 및 명의 안내
- 검진 상담 및 우대 예약
(KT 복지제도에서 검진 지원되는 분은 제외)



질환 케어 ⁺

- 상급종합병원 진료 예약
- 간호사 진료 동행
- 차량 에스코트



※ 가족사랑 헬스케어서비스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다운 헬스케어 콜센터 (☎1577-1555 → 4)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콜센터
☎ 1577-1555 → 4



모바일 앱
[KT다운헬스케어]



서비스 이용